

지역갈등 불씨 '새만금 행정구역' 해법 찾는다

새만금개발청, 연구용역 착수...전북도·지자체·중앙부처와 협의 단일 특별행정구역 지정할지, 군산·김제·부안 등으로 나눌지 관심

새만금개발청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 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이 검토된다.

핵심은 새만금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해 군산·김제시·부안군 등으로 나눌지 등이 될 전망이다. 용역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자체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7일 전북도 정부부지사와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을 만나 행정구역 논란 해소의 필요성,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문제와는 별개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용역 과정에서 5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매립공사를 거쳐 조성되는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구역을 놓고 인접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실제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를 놓고 "지자체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곳인데 사업을 강행하면 갈등과 분쟁일 일으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영토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4년에 걸친 소송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새만금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희귀식물 '가지더부살이' 내장산국립공원, 자생지 발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이전용)는 희귀식물인 가지더부살이(사진)의 새로운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지더부살이는 다른 식물에 기생해 살아가는 열당과 가지더부살이속 식물로 7월에 개화한다. 고산지역에 자라는 식물로, 지리산·속리산·한라산 등에서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키가 5-10cm로 아주 작은 데다, 식물체는 흰색이거나 연한 노란색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기생식물로 잎이 보이지 않고, 엽록소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가지더부살이는 '비자나무 국민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자생지가 새로 발견됐다"며 "자생식물의 서식지 보전 및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교실 안 미세먼지 잡는 정원 익산시, 4개 학교에 조성

익산시는 학교 교실 안에 수직 정원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잡는 '그린 스크 조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직 정원은 건축물의 벽면에 수직으로 꽃과 나무를 심어 재배하는 녹화공법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주변 온·습도 조절 효과 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수직 정원을 교실 면적의 2%가량 규모로 만들고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난 아이비,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의 식물을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4000만원을 들여 이리공업고, 전북과학고, 이리북초, 천서초 등 4곳에 설치해 반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정원을 꾸미고 가꾸도록 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을 꾀하면서 미세먼지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 명사십리 해변 모래언덕 보존...관광 자원화 '온힘'

해수부 3차 연안정비계획 반영 모래 넣고 침식방지 울타리 설치 도로 철거·우회도로 신설도



해안도로 건설에 따른 침식으로 사라져가는 고창 명사십리 해변의 모래언덕 등을 복원·보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진은 고창 명사십리 사구. <고창군 제공>

고창 상하면 장호에서 구시포까지 이어지는 명사십리 해변의 해양생태계 보존과 관광 자원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최근 환경·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에 명사십리사구가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변화하는 연안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연안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고창군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해수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명사십리사구의 총 사업비는 376억원이다. 모래(30만㎥), 침식방지 울타리(4500m), 도로 철거(4000m), 우회도로 신설(3000m)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맑은 모래가 10리에 달한다'는 명사십리 해변은 전해의 사구지역이나, 배후 해안도로 건설로 모래의 이동이 막히고 산림정 사방사업으로 설치한 호

안으로 인해 사구가 침식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침식 완충지 확보를 통한 천연 사구의 보전과 연안보호로 군민들이 연안을 안전

하고 쾌적하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현을 익산시장이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진 익산,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어린이집 188곳 2주간 '휴원'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당장 이날부터 어린이집 188곳 모두에 대해 휴원 조치를 내렸다. 일단 7월4일까지 2주 가량 문을 닫은 뒤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공공시설도 2주 동안 모두 폐쇄하고 시티투어와 공연 등 관광 및 문화 행사 역시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전파 고위험 시설인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업체, 뷔페식당 등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방문판매홍보관으로 운영 중인 6곳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또 매주 한 차례 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일하고 종교시설이나 학원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모두 4622곳이며 매일 800여명의 직원이 투입돼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익산시에서는 앞서 지난 21일 대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시장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방역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시설을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파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